



01 국제교류원의 칼럼 -가고시마현 국제교류원 첸 원-

○가고시마에서의 생활을 되돌아보며

02 지사의 움직임

○가고시마정보고등학교 여러분들이 방문하였습니다 (2월 6일)

○베트남 테토(구정) 페스타 2026 in 가고시마에 출석하였습니다 (2월 15일)

○「핑크 셔츠 데이」에 대한 보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월 18일)

○가고시마 데스티네이션 캠페인을 소개하기위해 선플라워에서 방문하였습니다
(2월 20일)

03 가고시마 이벤트 정보

○가고시마 마라톤 (3월 1일)

○하츠우마마츠리(初午祭) (3월 8일)

☯Coming UP! 【2026년 4월, 5월 이벤트 정보】

○가고시마현에서의 생활을 되돌아보며

가고시마현 국제교류원 첸 윈(중국 출신)

수국이 활짝 핀 5월 아름다운 가고시마에 도착한 저는 기묘한 모험을 시작하였습니다.

눈 깜짝할 새에 벚꽃이 피는 계절이 되어 이별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처음 가고시마에 왔을 때의 풍경이 마치 어제의 일과 같이 떠오릅니다. 전부터 벚꽃은 로맨틱이자 봄의 사자(使者), 온갖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벚꽃은 이별의 쓸쓸함이 더해져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사진 앨범을 되돌아보니 가고시마에서 지낸 10개월동안 무려 2만 3천장 이상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가고시마에서 지낸 4 계절의 기록이자 이 믿을 수 없는 인생의 체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체험은 인생에서 평생 그리워할 가치가 있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입니다.

저는 천천히 이 사진들을 곱씹으며 사진과 함께 시간을 되돌아가 선명한 가고시마에서의 생활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겠습니다.

여름의 가고시마는 녹음에 둘러싸여, 활기가 넘칩니다. 처음 가고시마에 왔을 때는 긴장과 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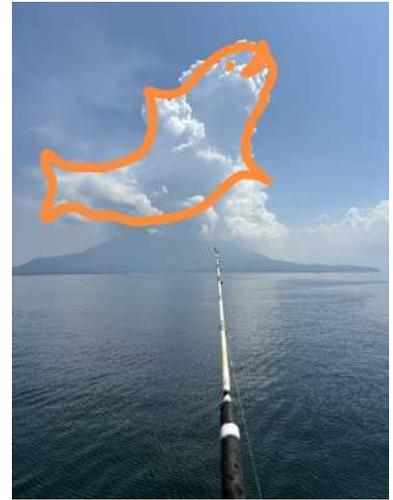


분으로 가득했습니다만, 동료들의 따뜻한 서포트 덕분에 금방 일과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중일우호협회의 총회에서 발언했을 때 고양감과 지사의 칭와대학의 대표단의 환영사를 통역할 때의 긴장감 등 지금 생각해도 생생이 떠오릅니다. 이런 실무경험 덕분에 제 업무능력과 일본어능력이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평소와 다른 길을 지나 집으로 돌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마치 모험을 떠나는 것 처럼 즐거웠습니다. 어떤 날은 바닷

가의 산책로로 가, 혼자 조용히 사쿠라지마를 바라보며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기사바의 “다이치쇼텐”에 가서 고기가 산더미처럼 올려져있는 라면을 먹기도 하였습니다.(강력 추천입니다!) 때로는 현청사의 18 층에 있는 전망대에 올라 로맨틱한 노을을 감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활기 넘치는 여름, 저는 많은 새로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즐거웠던 것은 친구와 함께 바다에 낚시를 하러 간 것입니다. 36 도라는 무더위에 저희는 어르신들과 함께 부두에서 한마디도 나누지 않고 물고기가 빨리 잡히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어르신들이 차례차례로 물고기를 잡는 것을 보며 저는 초조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낚싯대가 격하게 흔들렸는데, 드디어 물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낚싯대를 끌어올린 순간 부둣가에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잡힌 가장 큰 물고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스태프가 제가 잡은 물고기를 보고는 바로, “만지지 마세요”라고 주의를 하였습니다. 무려 그 물고기는 독이 있는 물고기였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니다. 정말 즐거웠던 추억입니다.

가고시마의 가을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거리에는 금목서향이 가득하고 열매가 결실을 맺는 계절입니다. 가고시마는 일본 남부에 위치하여 있어, 기후는 따뜻하며 가을이 오는 것도 제 고향보다 조금 늦습니다.



어느날, 출근길에 문득 그리운 향기를 맡았습니다. 그것은 금목서의 향이었습니다. 드디어 가고시마의 가을이 온 것 입니다! 그날, 협회의 중국어 강좌에서 저는 금목서를 테마로 참가자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본에서는 금목서의 꽃을 먹지 않는 것 같습디만, 중국에서는 요리에 쓰이곤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화주, 계화꽃떡, 계화조미료 등의 요리를 소개하자, 모두들 “중국에 가게되면 꼭 먹어보고 싶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제교류원의 업무의 의의 중 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어 강좌의 운영은 국제교류원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로, 제가 가장 좋아하고 기대하던 업무입니다. 가고시마현 국제교류협회에서 현민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중국문화강좌는 모두가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입니다. 가고시마현청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는 모두들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현내 초등학교에서 실시한 초등학생 대상 중국문화강좌에서는 아이들이 떠들썩하게 제 주변에 모여들어 중국에 관한 다양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천진난만하고 활기 넘치는 모습은 지금 되돌아 봐도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집니다.

현청의 신입사원 대상 오리엔테이션은 이 직장에 막 들어온 신입 사원들의 기대와 긴장한 모습을 보고 제가 처음 가고시마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무렵이 떠올랐습니다……

가고시마의 가을은 바쁘면서도 얻은 것도 많은 계절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가고시마시 중일우호협회 설립 40 주년 및 가고시마현 일중우호협회 설립 20 주년 기념식전에 초대되어, 지사의 인사말을 통역한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성대한 회의에서 통역한 것은 처음이었으므로 심장이 튀어나올 정도로 긴장했습니다만, 다행히도 무사히 임무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친목회에서는 오장하오 대사와 내빈분들에게 가고시마의 특산품을 소개하여 매우 영광으로 자랑스러운 기분이 되었습니다.

겨울의 가고시마는 푸르고 아련한 쓸쓸함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독특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가고시마에서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여 업무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모두가 기대하던 신년을 맞이하고 있을 때, 저에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 평온하던 일상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것을 안 분들은 매우 걱정을 해주셨고, 병원을 찾아주시고, 업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상냥히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따뜻한 배려는 마치 겨울의 햇불처럼 제 아픔과 슬픔을 잊게 해주셨습니다. 가고시마에 온 이후 여러분들에게



신세를 끼치고 배려를 받은 일들은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타국에서의 제 생활을 빛으로 비추고 큰 따뜻함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의 도움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과 만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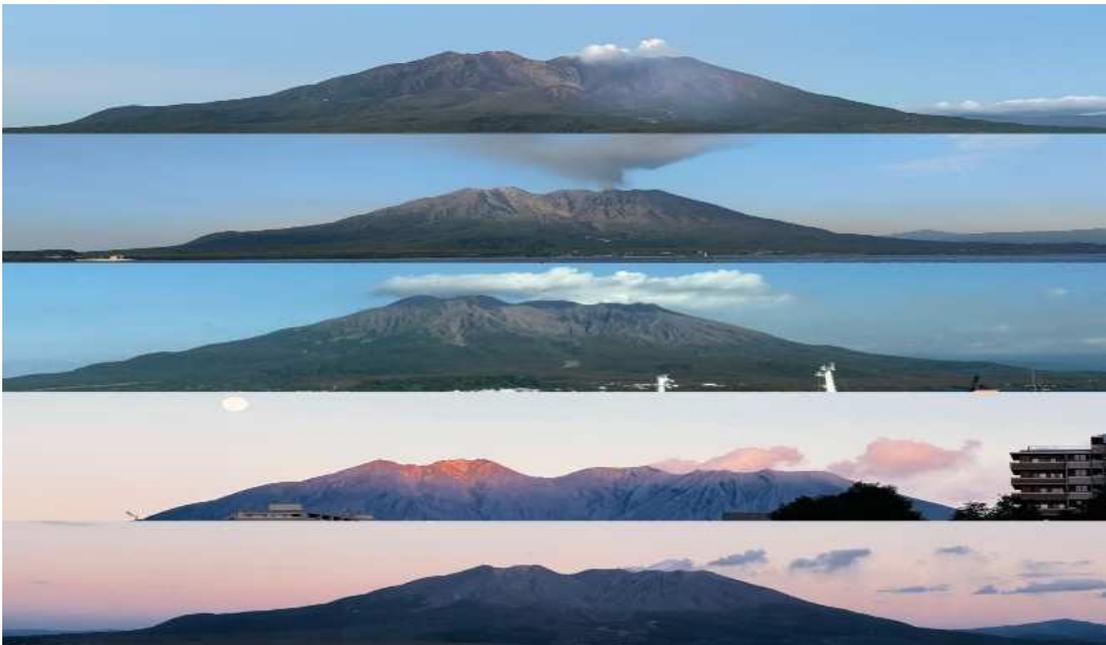


봄의 가고시마는 분홍색으로 물들어, 벚꽃이 만개하여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이 듭니다. 제 고향인 옌청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산이 없는 도시로, 화산도 물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고시마에서 생활하는 동안 몇번이나 사쿠라지마에 갔습니다. 비지터센터에서는 사쿠라지마의 역사와 분화의 모습 등을 배웠습니다. 또, 사쿠라지마에서는 분화한 화산재 덕분에 일본에서 제일 큰 무와 제일 작은 굴이 재배된다고 하니 정말 재밌는 일입니다.

여름은 작열하는 태양의 아래에서 증기가 떠다니는 온천에 들어가, 땀을 흘렸습니다.

가을에 사쿠라지마의 특산품 점에서 맛 본 계절한정 굴 맛 아이스크림의 여운이 지금도 입안을 맴돕니다.

봄에는 따뜻한 봄바람을 맞으며 사쿠라지마를 산책했습니다. 봄의 햇살은 밝고 경치도 평화롭습니다…… 사쿠라지마에는 제 멋진 추억들이 가득합니다!



시간은 언제나 순식간에 지나, 정신 차려보니 이별의 계절이 왔습니다. “안녕”이라는 말은 아무리 해도 입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국제교류원으로서의 업무는 끝나지만, 이 이별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 인연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저를 배려해주시고 지지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행복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2 지사의 움직임

○가고시마정보고등학교 여러분들이 방문하였습니다 (2월 6일)

대만 핑둥현과 교류하고 있는 학교법인 하라다학원 가고시마정보고등학교 여러분들이 작년 11월에 핑둥현에서 개최된 겐틴 마라톤에 참가하고 국립 핑둥대학과 교류한 것을 보고하기 위해 현청을 방문하였습니다.

가고시마현과 대만 핑둥현은 2024년에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청소년, 예술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교류하고 있습니다. 가고시마정보고등학교 학생분들은 핑둥대학 등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교사, 학생 총 69명이 대만을 방문하였습니다.

교장선생님은 대만을 방문한 학생들이 성장한 것, 학생들은 현지인들과 교류하고 식, 문화 등의 차이 등 해외와 교류하면서 느낀 것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고시마정보고등학교와 핑둥현의 교류가 깊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가고시마정보고등학교



▲대만 방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베트남 테토(구정) 페스타 2026 in 가고시마에 출석하였습니다 (2월 15일)

베트남 테토(구정)페스타 2026 in 가고시마를 개최했습니다.

테토 페스타는 베트남 구정 “테토” 시기에 현내 주재중인 베트남인들이 고향의 분위기를 즐기고 현민과 교류 등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당일에는 주일베트남 대사관 팜 관 히에우 특명전권대사가 비디오 메시지를 보내왔으며 베트남 요리와 특산물 판매 부스, 베트남 전통무용과 사자춤의 공연 등 폭 넓은 세대와 국적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이벤트가 개최되어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현에서는 앞으로도 베트남과 관계를 강화하고, 테토 페스타의 개최를 통해 베트남 여러분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심하고 살면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테토 페스타에서 인사하는 모습

○「핑크 셔츠 데이」에 대한 보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월 18일)

가고시마 YMCA 에서 학교폭력 반대 운동 「핑크 셔츠 데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가고시마현청을 방문하였습니다.

「핑크 셔츠 데이」는 2007년에 캐나다의 두 학생이 학교폭력 반대 운동으로 시작하였으며 주로 분홍색 티셔츠를 입거나 분홍색의 물건을 몸에 지니어, 학교폭력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는 운동입니다.

현재는 약 180개국이나 지역에 널리 퍼져 세계적인 캠페인이 되었으며 일본 YMCA는 이것에 찬성하여 매년 2월 마지막 수요일에 전국 각지에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핑크 셔츠 데이는 2월 마지막 수요일인 2월 25일(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생각하고 괴롭힘을 당한 사람과 연대한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핑크셔츠를 입고 기념촬영



▲YMCA 분들과 기념촬영

○가고시마 데스티네이션 캠페인을 소개하기 위해 선플라워에서 방문하였습니다

(2월 20일)

「선플라워가 있는 지역의 매력 미나미가고시마편」 데스티네이션 캠페인 등의 PR 을 위해 주식회사 선박 미츠이선플라워 여러분들이 방문하였습니다.

각종 프로모션과 캠페인을 통해 사람이나 음식, 그리고 유일무이한 체험이 가득한 가고시마의 매력과 훌륭한 점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항공기와 페리를 조합한 새로운 여행 스타일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캠페인을 통해 많은 분들이 가고시마현을 방문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플라워 여러분들과 기념촬영



▲선플라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03 가고시마 이벤트 정보

○가고시마 마라톤 (3 월 1 일)

가고시마 마라톤은 마라톤(42.195km)와 시내 중심부를 달리는 팬런(8.9km)의 두종목이 있습니다. 세계유수의 활화산, 사쿠라지마와 편온한 긴코만이 수놓은 장대한 경관, 남규슈 제일의 변화가 텐몬칸,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사이고동상 등 메이지 유신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거리를 가고시마의 맛있는 음식을 즐기면서 달릴 수 있는 대회입니다.

당일에는 날씨도 좋았으며 많은 러너들이 응원을 받으며 힘차게 달렸습니다.



◀당일 러너들과 러너들을 응원하는 모습
(출처:가고시마 마라톤 실행위원회 사무국)

○하츠우마 마츠리(3 월 8 일)

하츠우마 마츠리는 곡식풍년, 가내안전, 축산장려, 액막이 등을 기원하는 행사로 약 470 년전 무로마치시대에 시작되었습니다. 행사 당일에는 현내외에서 많은 관객이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20 마리의 봉납마와 2 천명의 무용수가 출연하여 하루종일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말의 등에 장식을 달고 목에는 방울을 단 "방울 단 말"이 행렬을 앞장서며 북과 샤미센 등에 맞춰 맘보춤같은 춤을 추는 것은 전국에서도 드문 축제입니다.

매년 10 만명이 찾아오는 가고시마를 대표하는 축제입니다.



Coming UP ! 【2026년 4월,5월 이벤트 정보】

◇4월

25일 사쿠라지마와 예술 불꽃놀이(가고시마시)

25~26일 가고시마 봄 마츠리 다이한야 2026(가고시마시)

상세한 내용은 QR 코드를 참고해주세요↓

◇5월

3일 후키아게하마 모래의 제전 (미나미사츠마시)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편집 후기 (가고시마현 관광·문화스포츠부 국제교류과)

“1월은 가고 2월은 도망가고 3월은 물러간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것은 1월에서 3월은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매일 매일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바쁜 나날에 쫓기는 중 정신 차려보니 어느새 3월이 되었네요.

3월은 떠남과 이별이 많은, 슬픈 계절입니다. 🌸

그래도, 쓸쓸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만큼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냈다는 증거.

이별의 저편에는 분명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의 감사의 마음으로 다음 계절을 맞이합시다♪

내년도에도 잘부탁드립니다

「가고시마 남쪽바람소식 게시판」에서는 가고시마에 관한 화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 및 게재합니다.

☆가고시마 포토 갤러리

가고시마만의 매력이 담긴 사진이나 해외에서 발견한 가고시마의 사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더미처럼 쌓인 화산재 봉투)

그외에도 전세계의 독자에게 소개하고 싶은 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기사 제공 및 문의처 ▲▽▲▽

일본 가고시마현 관광 · 문화스포츠부 국제교류과

〒 890-8577 가고시마시 가모이케 신마치 10-1

TEL: +81-99-286-2306

FAX: +81-99-286-5522

↓전자메일 주소

영 어 : cir1@pref.kagoshima.lg.jp

중국어 : cir2@pref.kagoshima.lg.jp

한국어 : cir3@pref.kagoshima.lg.jp

일본어 : minami@pref.kagoshima.lg.jp

가고시마현청 홈페이지



<http://www.pref.kagoshima.jp/>

가고시마 관광사이트



<https://www.kagoshima-kankou.com/>

※ 이 기사의 저작권은 가고시마현에 있습니다. 무단 게재와 불법복사를 금합니다.